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Related Variables about Maternal Parenting Stress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정희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교수 장영애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Park, Junghee

University of Incheon,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or : Jang, Youngae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through early childhood between urban(Seoul and Incheon) and rural area(Iksan and Kimpo). The subjects were 286 unemployed mothers who have less than 5-year-old children. The statistics used for this data were frequency, percentile,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 from the present study certainly suggested that mother's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marital satisfaction, father's parenting support turned out to a significant variable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etiologic model of this study was more proper to urban than rural area,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in predic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both area. Implica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

Corresponding Author: Park, Junghee,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201 Bongsung BLDG 1490-48, Seocho-dong, Seocho-ku, Seoul 137-870, Korea Tel : 82-2-523-4203 Fax : 82-2-586-6945 E-mail : dugi88@hanmail.net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to encourage for father's parenting support will be developed, and various empirical studies about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 will be needed.

주제어(Key Words): 자녀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모의 자아분화수준(mother's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양육태도(child-rearing attitude), 부의 양육참여도(father's child-rearing suppor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생활주기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첫 자녀의 출생을 통한 부부기(couplehood)에서 부모기(parenthood)로의 전환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양육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는 생활경험 중에서 의미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자녀가 인생의 한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을 디딜때마다 그들의 경험에 동참하고, 그들의 성취로부터 커다란 만족을 얻으며 크고 작은 실패에서는 슬픔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젊은 부부는 성숙해 나가게 된다(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7).

그러나 부모기로의 전환이 기쁨과 만족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됨과 더불어 오는 인생의 변화는 급격하고도 큰 것이어서 가끔 결혼관계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친밀감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첫 자녀의 출생은 가족발달주기에서 긍정적인 전환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출생에 수반된 생활의 변화, 즉 지출의 증가, 수면시간의 부족이나 방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감소 등이 부모들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Cmic, Greenberg, Ragozin, & Basham, 1983). 그러므로, 첫 자녀 출생을 통해 얻어지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는데는 이에 따른 적응을 필요로 한다.

부모기의 전환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됨이 대부분의 어머니에게 많은 양육부담을 주어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Boulton(1983)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1/3은 어머니됨을 충만감, 만족감, 몰입감 등의

폭넓은 긍정적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3는 어머니됨이 긍정적, 부정적인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고 응답하여 부모됨의 전환이 내재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Thomson & Walker, 1989; 강희경, 1998, 재인용).

White, Booth와 Edwards(1986)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녀의 존재 자체가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¹⁾(정현숙, 1996, 재인용). 뿐만 아니라 Cmic과 Greenberg(1990)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지각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심리적 복지감, 가족기능,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모-자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의 존재 자체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개인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와 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인해 가족체계의 전반적인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1)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전적으로 자녀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현숙(1996)은 부모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자녀의 부정적 효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바 있다. 즉,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주기의 U-곡선은 자녀의 효과뿐 아니라 결혼기간, 결혼동시집단(marriage cohort)의 효과일 수도 있으며, 자녀로 인해 이혼을 단념한 결혼생활이 불행한 집단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Lavee, Shariin, & Katz, 1996; Glenn, 1990; White et al, 1986; Glenn & McLanahan, 1982). 반면, 아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역할상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부 상호간에 향하던 에너지는 줄고 부부간 갈등이 증가하게 되어 상호작용의 궁극적인 붕괴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Kurdek, 1993; White et al, 1986).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 전환기에 경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이들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예비부모 혹은 부모전환기 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복지뿐만 아니라 모-자녀간 혹은 부부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가족생활주기 전이에 따른 가족적응력 약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의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도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수행되어왔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예, 김기현, 2000; 전춘애·박성연, 1998; Abidin, 1990; Belsky, 1984; Bendell, Stone, Field, & Goldstein, 1989 등),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있는 변인들이 규명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을 포함한 가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탐색도 아울러 이루어져 왔다(예, 신숙재, 1997; 이사라, 2000; 정현숙, 1996; Javis & Creasey, 1990, 1991; Krauss, 1993; Lavee, Sharlin, & Kats, 1996; Mash & Johnston, 1990 등).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이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앞서 박해미(1994)와 김기현(2000)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와 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이, 즉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간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지금까지 검증된 바 없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관련정보나 사회적지지 및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 경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를 관련변인별로 살펴보고, 두 지역 어머니들에 있어서 자녀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자녀양육기 부모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기초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양육기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많은 스트레스 연구들(김희조, 1994; 송주미, 1992; Abidin, 1990; Berkey & Hanson, 1991; Laster, 1981)은 이혼, 가족원의 죽음,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생활사건을 가족이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간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이는 성인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Cmic & Greenberg, 1990).

Lazarus와 Launier(1978)도 역시 중요한 생활사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어머니와 자녀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Kanner 등의 연구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 몇 개가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활사건보다도 더 위협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한미현·유

안진, 1995, 재인용). Crnic과 Greenberg(1990)의 연구 역시 부모역할과 관련된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매우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 Abidin(1990)의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정도와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3영역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양육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은 부모영역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재인용). Boss(1987)는 양육 스트레스를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 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으로서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보고 있다(고성혜, 199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란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들과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 부모로서의 역할 부담에서 오는 내적 긴장이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증가된 가사노동이나 통제하기 힘든 자녀의 행동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인지하게 되는 부담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²⁾

어머니의 연령은 전반적인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Belsky, 1984).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과 일상생활에 관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거나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김기현, 2000; 김영아, 1990; 남유리, 1989; 이광수, 1988; Brown, 1981; Lipmans, 1974; Thomson & Hendrie, 1972)가 보고되

고 있는 반면, 연령과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의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권경희, 1985; 이현주, 1999)들도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2000, 재인용).

또한 김기현(2000)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 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련되므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갖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한 반면(남유리, 1989; 선미정, 199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더 많아진다고 본 연구들(정영숙, 1980; Barnett & Baruch, 1985; White & Edwards, 1990)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이나 학력변인 외에도 가족의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른 생활사건 스트레스들과 무관한 개념이 아니므로 경제적 스트레스나 가족관계적 스트레스와 같은 변인들이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족형태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와의 상관정도에는 비교적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1999)의 연구에서는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자율적 양육태도와의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간에 미미한 상관을

2)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관련변인을 추출하였다.

보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반면, 전춘애 등(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기질 중 정서성은 양육행동 중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인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거부·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self differentiation)³⁾ 정도에 따라서도 양육 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 전춘애·박성연(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성숙과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한 Belsky와 Vondra(199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 체계에 의해 생활하는데 비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 체계에 근거하고 보다 신중히 생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Walsh(1982)의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들은 다양한 대처 기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전춘애 등, 1998, 재인용).

이밖에도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변인을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자녀양육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역시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 자아분화수준 변인 외에도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수준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남편의 양육참여정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를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신숙재(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적응 반응을 억제하고 적응반응을 촉진하거나 대처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는 하나 Unger와 Wandersman(1998)의 연구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행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Belsky(1984)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이며,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만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의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연구한 김기현(2000)의 연구에서도, 두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변인임이 밝혀졌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관련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란 Bowen이론의 핵심개념으로, 전춘애 등(1998)은 가족내의 감정적 상호의존 혹은 감정의 상호교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감정적 과정을 자아분화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지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상황을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첫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하인 도시 지역(서울과 인천 지역) 및 농촌지역(전북 익산과 경기도 김포 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는 비확률적 임의추출 방식으로 하였으며,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시지역의 경우 2001년 6월 25일부터, 농촌지역의 경우 같은 해 8월 12일부터 각각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각각 143부씩 총 286부가 최종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가족형태, 월평균 가계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이현주(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성 정도에 대해 묻는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부의 양육태도는 윤유은(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값(α)은 .7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은 박수선(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며, 신뢰도 값은 .66이 산출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정현숙(1997)의 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는 이현주(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참고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Pearlman과 Scholler(1978)의 MSI(Maternal Stress Inventory)를 번안하여 국내연구에 사용한 이영주(1998)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모성역할에 대한 불쾌감 정도를 '거의 안 그렇다(1점)'에서 '많이 그렇다(5점)'로 나누어 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 9.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산출을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도시주부와 농촌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test와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éff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 어머니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개 26세에서 35세 사이가 가장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첫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하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26세에서 36세 사이가 전체 76.2%, 농촌지역은 그보다 많은 82.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56.6%와 66.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인	구분	도시주부(N=143)		농촌주부(N=143)	
		N	(%)	N	(%)
연령	25세 이하	15	(10.5)	1	(0.7)
	26~30세	75	(52.4)	53	(37.1)
	31~35세	34	(23.8)	65	(45.5)
	36세 이상	19	(13.3)	24	(16.8)
학력	중졸 이하	-	-	2	(1.4)
	고졸	81	(56.6)	95	(66.4)
	전문대·대졸	26	(18.2)	43	(30.1)
	대졸 이상	36	(25.2)	3	(2.1)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5	(10.5)	16	(11.2)
	100~150만원 미만	58	(40.6)	40	(28.0)
	150~200만원 미만	54	(37.8)	70	(49.0)
	200만원 이상	16	(11.2)	17	(11.9)
가족형태	핵가족	125	(87.4)	106	(53.8)
	직계가족	18	(12.6)	37	(46.2)

로 나타난 고졸 학력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이 25.2%나 되어 농촌보다는 고학력 주부들이 많이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도시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 40.6%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도 37.8%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49.0%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 28%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사대상자 가계 대부분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월평균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두 지역 모두 10% 정도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형태로는 도시의 경우 핵가족의 비율이 87.4%로 직계가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의 경우에는 핵가족이 53.8%, 직계가족이 46.2%로 핵가족과 직계가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가족형태면에 있어서는 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관련변인별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분석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점수범위 5점에서 35점 중 도시 어머니들은 평균 15.94점(sd=4.26), 농촌 어머니들은 평균 16.41점(sd=3.9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어머니들 중 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약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수분포 면에서는 두 지역 모두에서 최소값이 7점으로 같지만, 최대값에 있어서는 농촌이 33점으로 도시보다(26점) 높게 나타나 농촌 어머니들이 점수편차는 작지만 극단점수를 갖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변인에 따라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F=3.846, p<.01)과 가족형태(t=-2.469, p<.05)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장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지극히 짐에 따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

〈표 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관련변인별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변인	구분	도시지역(N=143)			농촌지역(N=143)		
		M	t/F	Schéffe	M	t/F	Schéffe
연령	30세 미만	16.92			15.87		
	30세 이상~35세 미만	16.06	1.780		16.56	1.133	
	36세 이상	14.95			17.29		
학력	고졸 이하	16.09			16.99		
	전문대졸 이상	15.63	1.045		15.21	6.442*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6.93		a	17.5		
	100~150만원 미만	16.61	3.846*	ab	16.8	.785	
	150~200만원 미만	15.59		b	16.0		
	200만원 이상	13.06		b	16.24		
가족형태	핵가족	15.62			16.25		
	직계가족	18.22	-2.469*		16.92	.787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15.35		ab	14.06		a
	중간 양육태도	14.92	3.440*	a	16.38	7.231***	ab
	부정적 양육태도	16.87		b	18.20		b
자아분화 수준	높은 집단	13.46		a	15.06		a
	중간 집단	15.87	18.094***	b	16.17	8.496***	a
	낮은 집단	18.78		c	19.38		b
신체적 건강상태	보통보다 건강하지 못함	16.59			19.57		
	보통보다 건강함	15.39	1.691		16.02	12.152*	
정신적 건강상태	보통보다 건강하지 못함	18.38			20.29		
	보통보다 건강함	15.09	4.273***		16.22	7.273**	
결혼 만족도	높은 집단	13.09		a	14.82		a
	중간 집단	16.11	15.742***	b	16.00	9.647***	a
	낮은 집단	18.02		b	18.46		b
남편의 양육 참여도	높은 집단	13.37		a	13.50		a
	중간 집단	15.84	15.546***	b	16.35	14.592***	b
	낮은 집단	18.38		c	18.45		c

* p<.05 ** p<.01 *** p<.001

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 소득이 중요한 한 변인임이 검증되었다.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의 경우보다 직계가족의 경우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69, p < .05$).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

하는데 있어서 신세대 어머니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기타 직계가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계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거나 혹은 직계가족 형태로 살지는 않지만 자녀양육에 있어서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나 세대간 경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태도나 자아분화수준,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 변인을 제외한 세 변인 모두가 각각 $p<.05$, $p<.00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양육태도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16.8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가질때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자녀를 귀찮게 생각하고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겠다.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 정도에 따라서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아분화가 낮은 어머니가 평균 18.78점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그 다음 중간 집단, 높은 집단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춘애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갈등적 상황을 인지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정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를 확인하고 성숙한 부모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신체적 건강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질병이나 노동,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감 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양육상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른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와 맞

물려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도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 각각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기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원만한 부부관계와 남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농촌지역 어머니들은 도시지역 어머니들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가족형태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력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에서는 고졸이하가 전문대·대졸이상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나 관심의 부족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나 가족형태면에 있어서는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생활 위주의 도시생활보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남아있어 직계가족 생활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형태가 농촌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분화수준 변인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육태도의 경우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가장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고 그 다음이 중간적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도시지역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후속연구를 통해 그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에 있어서도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아분화가 낮은 어머니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이나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p<.05$) 및 정신적 건강수준($p<.01$)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 어머니들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와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지역 어머니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변인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하겠다.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에서도 각각 $p<.01$,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

이 중간이나 높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고,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주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고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계향상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상대적 영향력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여러 관련변인들을 기초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표 4> 참조), r^2 이 .70이상 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두

<표 3> 도시지역 어머니의 관련변인들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n=14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1.00										
2. 학력	-.05	1.00									
3. 월평균 가계소득	.08	.13	1.00								
4. 가족형태(직계가족=1)	.15	-.03	.03	1.00							
5. 양육태도	.02	-.01	.03	-.02	1.00						
6. 자아분화 수준	.00	.05	.09	-.05	-.14	1.00					
7. 신체적 건강	-.07	.12	.10	.06	-.19*	-.21*	1.00				
8. 정신적 건강	-.09	.24**	.12	.03	-.28**	-.21*	.46***	1.00			
9. 남편의 양육참여도	.07	.18*	.20*	.18*	-.20	-.19*	.19*	.31***	1.00		
10. 결혼만족도	.02	.26**	.20*	.07	-.12	-.02	.20*	.33***	.66***	1.00	
11. 양육스트레스	.21**	-.12	.02	-.00	.31***	.17*	-.01	-.22**	-.30**	-.28**	1.00
평균 (표준편차)	30.68 (4.52)	1.69 (.85)	2.62 (.85)	0.35 (.12)	21.48 (5.00)	2.08 (.56)	3.57 (.74)	3.28 (.84)	9.33 (2.01)	18.89 (6.12)	16.41 (3.97)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변인은 통계분석 시 원점수를 사용함.

* $p<.05$, ** $p<.01$, *** $p<.001$

<표 4> 농촌지역 어머니의 관련변인들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n=14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1.00										
2. 학력	-.16	1.00									
3. 월평균 가계소득	-.01	.13	1.00								
4. 가족형태(직계가족=1)	.16	.16*	.03	1.00							
5. 양육태도	.11	.26**	-.02	.09	1.00						
6. 자아분화수준	-.14	.00	.07	-.13	-.14	1.00					
7. 신체적 건강	.11	-.00	-.06	-.06	-.05	.06	1.00				
8. 정신적 건강	-.02	-.06	.09	-.17	-.27	.16	.22**	1.00			
9. 남편의 양육참여도	-.03	-.13	.10	.05	.20*	.07	-.11	-.24**	1.00		
10. 결혼만족도	-.04	.01	.11	.18*	.16	.06	-.11	-.24**	.61***	1.00	
11. 양육스트레스	-.12	.01	-.09	-.37***	-.23**	.20*	.16	.45***	-.43**	-.43**	1.00
평균 (표준편차)	32.45 (5.50)	1.32 (.94)	2.62 (.85)	.65 (.12)	20.90 (3.47)	1.94 (.59)	3.39 (.77)	3.52 (.70)	10.31 (2.93)	20.58 (5.09)	15.94 (4.26)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변인은 통계분석 시 원점수를 사용함.

* p<.05, ** p<.01, *** p<.001

모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가까워 자상관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R²값이 .45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양육스트레스 설명모형이 p<.001 수준에서

매우 설명력 높은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대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도시지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원인변인이 잘 탐색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어머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정신

<표 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도시지역(n=143)		농촌지역(n=143)	
	b	β	b	β
연령	-3.217E-02	-.039	.526	.096
학력	.263	.116	-.756	-.103
월평균 소득	-4.252E-03	-.049	-.114	-.025
가족형태(직계가족=1)	1.763	.138*	1.286	.102
양육태도	1.715E-02	.058	-.230	-.037
자아분화수준	-1.555	-.265***	-1.645	-.244***
신체적 건강	.465	.098	-.990	-.194*
정신적 건강	-1.692	-.312***	-.403	-.071
남편의 양육참여도	-1.664	-.283***	-1.613	-.274***
결혼만족도	.781	.135	.396	-.073
intercept	17.943		22.022	
R ²	.458***		.341***	
Durbin-Watson 계수	2.123		2.034	

* p<.05 ** p<.01 *** p<.001

적 건강 변인이 $\beta = -.312(p < .001)$,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beta = -.283(p < .001)$, 자아분화수준이 $\beta = .265(p < .001)$, 가족형태가 $\beta = .138(p < .05)$ 의 순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어머니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핵가족일 때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전체 설명력(R^2 값)이 .341($p < .001$)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이 더욱더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에서 보느냐와 같이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beta = -.274(p < .001)$,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beta = -.244(p < .01)$, 그리고 신체적 건강 변인이 $\beta = -.194(p < .05)$ 의 순으로 설명력 있는 관련변인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어머니들은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덜 참여한다고 느낄수록, 어머니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도시주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 건강보다는 신체적 건강에 더 영향을 받으며, 가족형태와는 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과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이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남편의 양육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역할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아버지들은 아버지됨의 의미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 있어서 남편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아버지들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를 맞아 어거니로서의 새로운 역할 취득에 따른 도시와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모전환기 부모들을 위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련변인들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정신적 건강상태, 가족형태, 월평균 가계소득, 양육태도,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농촌지역 어머니들은 학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양육태도,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지역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가족형태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가족형태에는 덜 민감하고 신체적 건강상태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양육태도,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같은 변인과 결혼만족도, 남편의 양육참여도와 같은 지지변인들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개인의 정신적 성숙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때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나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모형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R^2 값이 45.5%로 매우 유의한 변인들임이 입증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R^2 값이 34.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련변인들이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작업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에서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아버지들의 지지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중재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버지들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아버지들로 하여금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자녀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 역시 남편의 양육참여도 만큼 설명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체벌이 대부분 부모 자신의 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인지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구가 주로 도시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우리 나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미흡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은 도시지역에 비해 자녀양육을 지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유형과 빈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그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연구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선(1996).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사라(2000). 어머니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85-96.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영주(1998). 장애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전춘애,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현숙(1996). 부모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가족학 논집*, 8, 43-56.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1997).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dell, R. D., Stone, W., Field, T., & Goldstein, S. (1989). Children's effects on parenting stress in a low income, minority popula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 58-71.
- Crnic, L.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Javis, P. A., & Creasey, G. L. (199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mari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and fath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Richmond, Virginia.
- Javis, P. A., & Creasey, G. L. (1991). Parenting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with an 18-month-old infa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 383-395.
- Krauss, M. W. (1993). Child-related and parenting stress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7, 393-404.
- Lavee, Y., Sharlin, S., & Kats, R. (1996).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114-135.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2002년 9월 12일 접수, 2003년 2월 25일 채택)